



씨는 물어주고 세는 날려주고...

- 왜 자연보호이고 환경보전인가 -

이 경 식 < 국립공원협회 회장 >

우 리들 인간이 생태적으로 그 품에 안겨있는 자연환경은 하나의 질서요 조화(調和)이다. 자연과 환경은 또한 그 스스로 생명을 이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결코 인간의 간섭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풀벌레, 곤충, 달팽이, 뱀, 개구리, 잠자리, 박쥐, 두꺼비등 자연속의 못 생명들이 물고 물리는 생태계의 먹이사슬(food chain)은 인간의 야박하고 둔한 머리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묘한 조화와 인과(因果)로 얽혀 있다.

큰 나무가 폭우와 바람에 꺾여 쓰

러지면 그동안 큰 나무에 가려 자라지 못했던 작은 나무가 자람으로써 큰 나무가 되어 다시 생태계를 지탱한다. 다시 말해 자연은 스스로가 그 자신을 유지하도록 그대로 놔두는 것이 그야말로 「자연의 이치」에 맞는 일이다. 그대로 놔두어라, 그것이 자연이다.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빙하의 침식으로 인한 아름다운 계곡과 기암절벽이 절경을 이룬 천하의 명소이다. 그러나 그 입구에 들어서면 금지(Prohibit)니 철거(Remove)니 하는 등의 표지판부터가 눈에 띈다. 「자연복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

으니 들어가자 말라」는 것과 「자연 그대로의 요세미티」로 탈바꿈하기 위해 숙박시설이 철거 됐거나 철거 예정임을 알리는 안내문이다.

요세미티는 지난 80년대부터 공원 관리 종합계획(GMP)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하나씩 실천하여 지난 97년에 60% 정도 복원 성과를 거뒀고 지금은 21세기에 대비한 세부적인 요세미티 청사진까지 입안되어 있다.

계곡과 하천을 오염과 훼손상태에서 되살리기 위해 공원내의 편의시설을 감축하는 일도 과감하게 실행해 왔다. 다소 지나치다 싶은 각종 「금지사항」과 「철거현장」을 놓고 불편을 느낀 탐방객들이 「인간이 이용할 수 없다면 자연의 모습을 되찾아 본들 무슨 소용이냐」고 항의하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공원측을 이해하고 협조하게 되었다.

최근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정례적으로 국립공원 등반 또는 야영의 예약제, 야간등반제한, 산불 위험이 높은 주요 등산로에 대한 입산통제 등 「금지」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 일부 탐방객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잘못이다. 보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그 또한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 한다.

역시 미국의 경우지만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5월부터 6개월만 공개하고 대부분의 편의시설도 6월중순부터 9월까지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연을 살리고 지키는 일을 위해선 이왕에 마련된 시책을 과감하게 실천하고 보다 전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지속적인 정책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따른다. 자연의 이용없이는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자연의 이치」이다. 그러나 자연을 이용하기 위해서도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을 극대화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용 편의 시설이다.

합리적인 편의시설은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파괴없이 합리적 이용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여기서 바로 「보호육성과 이용을 위한

개발의 조화」라는 숙제가 제기된다. 우리는 이제부터 이 숙제를 풀기에 전념해야 한다.

자연을 보호하자는 것은 그 자연을 보호함으로써 그 자연으로부터 인간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보호에 있는 것이다.

「씨는 묻어주고 새는 날려주고 꽃잎은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 어느 존경하는 스승이 독백처럼 외운 이 한구절에 끌려 한평생을 자연보호와 환경보전운동에 매달려 있는



사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는 언제나 깊은 감동을 느낀다. 자연은 그대로 놔 두는 것이어야 한다.▲▲

알림

-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국립공원문화」가 여러분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5매 정도 분량의 원고와 함께 사진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실어드리겠습니다.

☞ 보낼 곳

전자우편 : 천리안 NPKA2420
하이텔 NPKA2420

FAX : 912-4243

우편 :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산 1-1 국립공원협회